

# 통합특별시장 결선 향한 '합종연횡' 수 싸움 치열

### 민주 경선 5명 후보 과반 확보 난망 결선투표 대비 '3색 시나리오' 관심 "구태의연 야합, 유권자 역풍 가능성"

4월3-5일 치러질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 대진표가 김영록·강기정·주철현·신정훈·민형배(경선 기호순) 후보 등 5인으로 압축됐다.

24일 지역 정세가 따르면 다자 구도로 치러지는 본경선에서 권리당원 및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해 과반(50% 이상)을 득표할 절대 강자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결국 최종 승자는 상위 2명이 맞붙는 결선투표(4월12-14일)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탈락한 후보들의 표심을 흡수하기 위한 후보 간 지역합종연횡이 초대 통합특별시장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 ◇가치연대 띄운 강기정-신정훈

현재 가장 역동적인 연대 움직임은 보이는 곳은 강기정 후보와 신정훈 후보 진영이다. 두 후보는 지난 23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옥현진 대주교를 공동 예방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표면적으로는 지역 상생을 내세웠으나, 정치권은 이를 다자 구도 본경선에서 결선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학 시절부터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해 온 두 사람은 경쟁 이후 하나로 모아내는 '통합의 정치'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선두권에 대항하는 연대를 모색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 ◇친명·도농 보완 민형배-주철현

광주의 민형배 후보와 전남 동부권 기반 주철현 후보의 연대 시나리오도 정치적 맥락에서 유력하게 거론된다. 두 후보는 기초단체장 출신 대선 의원이라는 공통점 외에도 당내 주류인 '친명(친이재명)' 계파로서의 선명성을 띠고 있다.

실제 지난 합동연설회에서 강기정 후보의 "이재명 대통령을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에 맞

서 함께 당내 정통성을 옹호하며 방어 전선을 구축하기도 했다.

광주에 지지 기반을 둔 민 후보와 전남 동부권에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주 후보가 결합할 경우 지리·정책적으로 상호 보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김영록 '안정 세력 결집'...이병훈 합류

탄탄한 도정 평가를 앞세운 김영록 후보는 돌출된 '신정훈 리스크'로 연대 전략에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경쟁자인 신정훈 후보는 김 후보의 '500조원 반도체 투자' 공약을 "실제 없는 희망 고문이자 시·도민 기만"이라며 연일 맹폭하고 공개 맞장 토크까지 제한한 상태다.

이로 인해 사실상 신 후보 지지층 흡수가 차단된 김 후보는 결선투표 진출 시 이계호·이병훈·정준호 등 중도 사퇴 후보나 예비경선 탈락 후보들이 남긴 조직력 등 보수-안정 지향적 당원들을 규합하는 '세력 결집'에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일단 김 후보의 경우 24일 이병훈 민주당 호남 발전특위 상임수석부위원장의 지지를 이끌어 내며 연대의 발판을 마련한 만큼 향후 타 후보와의 연대 확장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결선투표 '정책 연합' 리더십 시험대

전문가들은 권력을 단순히 나눠 갖는 구태의연한 조직 동원식 야합은 부패 선거의 온상이 되며 유권자들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통합시장'은 4명의 차관급 부시장 임명권을 쥐고 있다.

그것보다는 예비경선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정부 특별 지원금 확보와 AI 거점화, 1시간 생활권 교통망 혁신, 통합청사 분산 배치 등 탈락 후보자들이 내걸었던 굵직한 공약들을 결선 진출자들이 어떻게 수용하고 융합해 낼 것인지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초대 통합특별시장의 운명을 가를 결선투표는 단순한 세 대결을 넘어 갈등을 조정하고 치밀한 '정책 연합'을 이뤄내는 통합적 리더십의 시험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24일 영광군의 한 거리에서 군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강기정 예비후보 측 제공)

## 강기정, 순천에 후원회사무실 개소

### "동부권 100만 도시 반드시 실현"

### 영광 등 민심 청취 행보도 지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 강기정 예비후보(광주시장 직무정지)가 '빛명 캠프'를 본격 가동한 데 이어, 순천에 후원회 사무실을 개소했다.

강 예비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순천 연합동 조은프라자에 후원회 사무실을 열었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동부권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최대 산업벨트인데 꺼져가는 도시가 됐다"며 "동부권을 가장 먼저 살려내 부강한 100만 대도시로 만들어 내고 광역경제권을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예비후보는 동부권 100만 도시 실현을 위해 ▲순천 '정원 100명 규모 통합 의과대학' 설립 ▲순천 반도체 생산공장 유치 ▲광양 만·여수산단 '무탄소 전력 산업단지' 조성 ▲공공기관 2차 맞춤형 이전을 통한 동부권 산업·일자리 기반 확대 ▲전남 동부본부 '산업청사' 격상 등 비전을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통합특별시장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를 함께하는 만큼 통합의 성공이 곧 이재명 정부 성공의 척도"라며 "군공항 이전 협의, 복합쇼핑몰 등 묵은 숙제를 풀어낸 실용 정신과 3선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거친 풍부한 경험으로 통합의 갈등을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 예비후보는 이날 새벽 영광터미널시장을 찾아 고유가·고물가로 시름하고 있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경정한 데 이어, 영광군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공주다움 통합돌봄'의 전남 전역 확대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강 예비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밑바탕으로 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며 "부강한 광주·전남을 실현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변은진기자

## 강성휘 "목포시정 공백 끊고 반드시 승리"

더불어민주당 강성휘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을 앞두고 무너진 시정 신뢰 회복과 본선 승리를 다짐했다.

강 예비후보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선택이 아니라 무너진 시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도시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민주당의 확실한 필승가드로 본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목포의 자존심을 되찾고 도시의 미래를 열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무너진 행정 신뢰·청렴도 즉각 회복 ▲과거 혼선을 끊는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시정 대전환 ▲김원이 국회의원과 '원팀' 협력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목포=정혜선기자

강 예비후보는 목포의 자존심을 되찾고 도시의 미래를 열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무너진 행정 신뢰·청렴도 즉각 회복 ▲과거 혼선을 끊는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시정 대전환 ▲김원이 국회의원과 '원팀' 협력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목포=정혜선기자

## "출생기본수당·청년문화복지카드 광주까지 확대"

### 김영록, 7월 특별시 출범때 시행 약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는 24일 "전남에서 선봉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출생기본수당과 청년문화복지카드 혜택을 광주까지 넓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광주특별시민의 삶에 더 보탬이 되는 출생·청년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만 1세부터 18세까지 18년 간 매월 20만

원씩을 지원하는 출생기본수당을 광주까지 확대해 7월1일부터 당장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0세에서 1세까지는 국가에서 1천200만원을 지원한다.

김 예비후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아이 낳아 키우는 것이 축복이 되는 특별시, 신혼부부의 육아 부담을 함께 나눠 짚어지는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예비후보는 청년들이 부담없이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게 지급하던 연 25만원 상당의 청년문화복지카드 혜택도 전남광주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급 액수를 50만원으로 늘리고 혜택 대상도 기존 19-28세에서 19-34세로 넓혀 적용한다는 약속도 내놴다. 이를 통해 특별시의 젊은 청년들이 문화로 플렉스(FLEX)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김 예비후보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은 복지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특별시, 청년이 머물고 싶은 특별시를 김영록이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재정기자

# 광주 남구 2026 고향사랑기부 지정사업 안내

**100년 후에도 전해주는 시간 우체국**  
우편물을 최장 '100년'까지 보관하고 발송하는 공간

**장애를 넘는 천상의 하모니**  
국외 현지 장애인 예술단과의 문화 교류 및 합동 공연 지원

**우리는 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발달장애인 수영클럽 운영 및 전국대회 출전비 지원

**꿈의 오케스트라 국외공연**  
글로벌 세계 무대 'K-컬처' 교류 국외공연 비용 지원

**미래를 향해 달리는 '통일열차'**  
한반도 평화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체험형 평화통일교육 열차

**'지정기부'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 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

문의 광주 남구 주민자치과 고향사랑기부팀[062-607-2883]

※ 자세한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하세요

